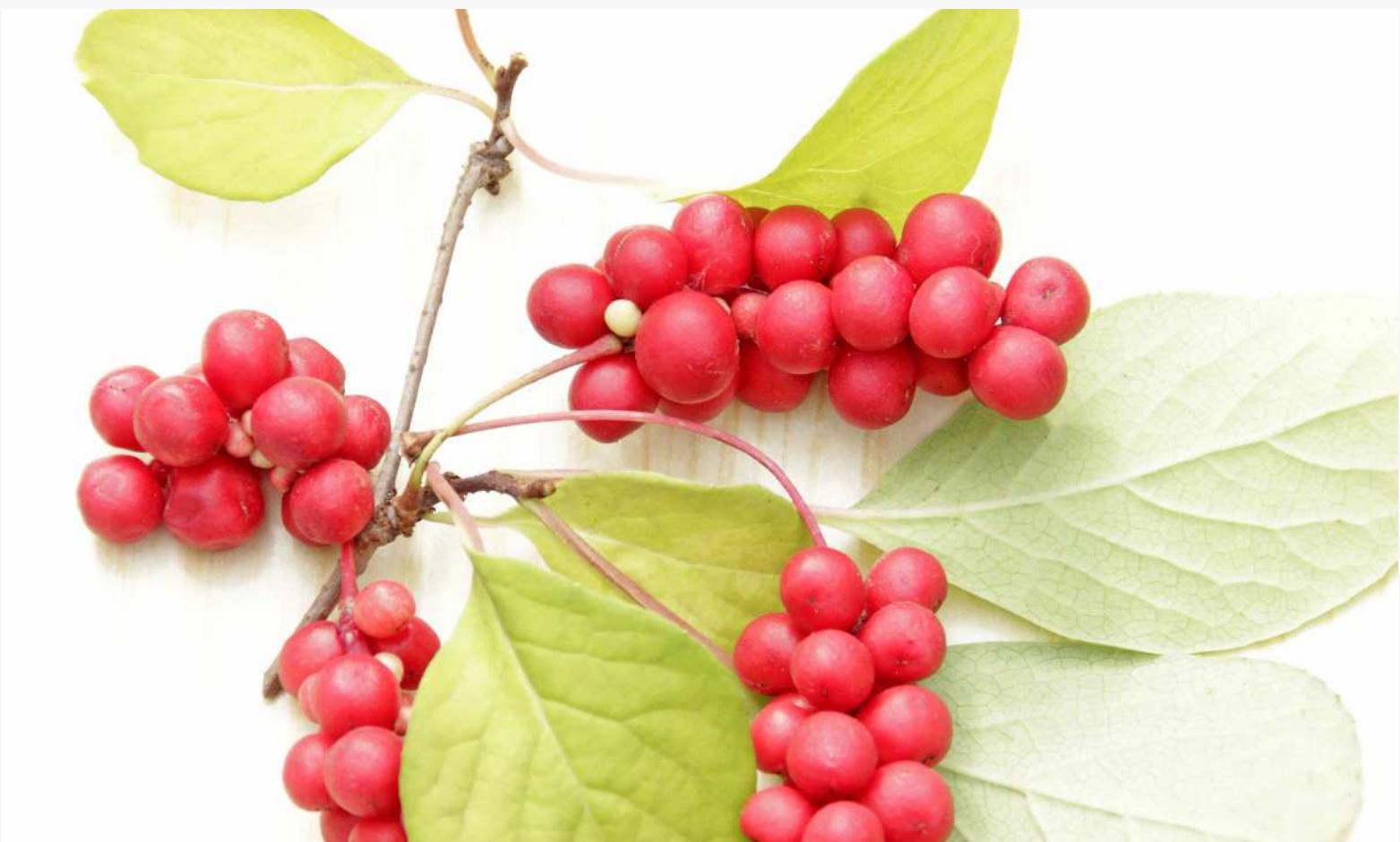


여름철 갈증 해소에 좋은 약초

오미자



오미자의 효능



오미자는 사람의 혈기를 양생하고, 기를 다스리며,
담, 폐, 심장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
체내의 비생리적 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므로
심장, 간장, 기, 혈이 허약한 사람에게 좋습니다.

또한, 눈, 피부, 맥박, 생식기, 항문의 이상 현상을 다스리는 효력이 있고,
노약자와 허약하고 마른 사람, 심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의 저녁을
깔끔한 요리!

오미자 샐러드

<재료>

모듬 샐러드, 오미자 엑기스 3T, 레몬즙, 식초, 올리고당 1T

<요리법>

- 양상추, 치커리, 당귀잎, 새싹채소 등 모듬 샐러드를 준비한다.
- 모듬샐러드에 오미자 엑기스, 식초, 레몬즙, 올리고당을 넣고 혼합한다.
- 기호에 따라 바나나와 오이 등을 첨가한다.



오미자차

< 재료 >

건조오미자 50g, 물 2L

< 요리법 >

1. 깨끗이 씻은 건조오미자를 준비한다.
2. 물 2L에 건조오미자 50g을 넣고 냉장고에 하루정도 보관한다.
3. 건더기를 거른 다음 설탕이나 꿀을 기호에 맞게 첨가한다.



오미자 양갱

<재료>

한천 30g, 물 900cc, 설탕 660g, 물엿 330g, 백옥양금 1kg, 오미자분말 1T

<요리법>

1. 한천은 하루 전 날 찬물에 불리고 건져낸 후, 물 900cc에 넣고 끓인다.
2. 설탕을 넣고 20정도 바글바글 끓인다.
3. 물엿을 넣고 조금 더 끓인다.
4. 백옥 양금을 넣고 눌지 않도록 조금씩 풀어가며 끓인다.
5. 찬물에 떨어뜨려 풀어지지 않으면 불을 끄고 틀에 붓는다.
6. 냉장고에서 3시간 정도 굳힌다.



오미자 엑기스

< 재료 >

생오미자 1kg, 설탕 1kg

< 요리법 >

1. 생오미자를 흐르는 물에 씻고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다.
2. 유리병이나 황토항아리에 생오미자와 설탕을 넣고 밀봉한다.
3.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 25~30일간 우려낸다.
4. 다 녹지 않은 설탕은 가끔씩 저어 완전히 녹인다.
5. 생오미자를 체어 거른 후 엑기스를 냉장 보관한다.

< 팁 >

소주, 동동주 등에 첨가하여 칵테일로 마실 수 있으며
육포나 고기를 재울 때 활용하면 고기를 더욱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

오미자크림소스 두부스테이크

<재료>

부침용 두부 1모, 표고버섯 2개, 새송이버섯 1개, 숙주 100g, 토마토 1/2개, 쪽파 2대
소스: 오미자 20g, 물 1C, 꿀 2T, 다진 양파 2T, 다진 마늘 1t, 생크림 1/2C, 소금 1t, 후추, 올리브유

<요리법>

1. 두부는 키친타올로 물기 제거 후, 4등분으로 잘라 소금, 후추를 약간씩 뿌려둔다.
2. 표고버섯은 채 썰고 새송이버섯은 슬라이스 한다.
3. 숙주는 다듬어 씻어 물기를 빼고 토마토는 과육만 채 썬다. 쪽파는 송송 썬다.
4. 두부는 노릇하게 굽고 버섯은 소금, 후추로 간 해 볶는다. 숙주와 토마토도 살짝 볶는다
5. 따뜻한 물에 오미자를 담가 하룻밤 우린 후 체에 거르고 꿀을 섞어 오미자 물을 만든다.
6.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양파와 마늘을 볶아 향을 낸 뒤 오미자물 1/2C, 생크림, 소금, 후추를 넣고 조린다.

7. 접시에 구운 두부를 담고 버섯과 채소, 오미자 크림소스, 쪽파를 뿌린다.



갈증 해소에 좋은
'오미자' 드시고
시원한 여름 나세요!